

가르치는 교회 ▪ 전파하는 교회 ▪ 봉사하는 교회

표어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1. 영적부흥을 통해 예수의 제자가 되어,
2.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3. 21세기를 감당하는 일꾼을 키워내고,
4. 지역사회를 인도하고,
5. 세계선교에 헌신하는데 있습니다.

월 행사 안내

5월 18일(토)
부부학교 개강

6월 1일(토)
청년알파 수료식

6월 4일(화)
성인 알파 수료

6월 15일(토)
상반기 새가족 환영회

대 예수교장로회
양주

한우리교회

담임목사 **남 우 택** (Stephen W. T. NAM)

59 View Rd. Glenfield, Auckland, 442-1457

Hanouri Korean Presbyterian Church



주일에배

예 배 순 서

1부 8:00 2부 10:00 3부 12:00 4부 2:00 사회: 1부/안현수 2부/이요한 3부/이성민 4부/이효빈

- 예배부름 사 회 자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함 께
 - 경배와찬양 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함 께
예수 사랑하심은
 - 봉헌 및 1부/ 임상규 장로 2부/ 고현숙 권사 3부/ 신규식 장로 다 함 께
대표기도
 - 성 경 눅 19:1-10 사 회 자
 - 찬 양 2부: 살아계신 주 시온찬양대
3부: 요게벳의 노래 할렐루야찬양대
 - 말 씬 새로운 삶의 출발 시리즈 3 남우택 목사
삶의 방향을 바꾸라
 - 찬 양 새롭게 하소서 다 함 께
여기에 모인 우리
 - 축 도 설 교 자
- <4부 예배 순서>**
- 경배와찬양 다 함 께
 - 봉헌 및 갈 민
대표기도
 - 찬 양 주의 가정 가브리엘찬양대
 - 말 씬 신 5:6-21 김진영 목사
[데칼로그3] 질투하는 하나님
 - 축 도 설 교 자
- 다음주 기도: 1부/ 조기동 장로 2부/ 김태원 장로 3부/ 김경원 권사 4부/ 이진희 청년

수요일예배

저녁 7시30분

말씀: 렘 18:1-12
 제목: 내 손에 있는 너희
 기도: 장태용 집사 (다음 주 기도: 안병우 집사)
 설교: 이요한 목사

교회 소식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회알림

1. 한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예배 시작전, 소지하신 휴대폰을 반드시
무음 처리하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3. 공동체를 섬겨 나아갈 직분자(장로 3인,
권사 10인, 안수집사 5인)를 선출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주보와
게시판 공고문 참조) 5월 12일까지 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시간 변경 및 한우리 베이직

- 수요예배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드리고 7시 45분 부터는 '한우리 베이직'이
진행됩니다.

| 7시 | 수요예배 | | |
|----------------------------------|---------------------|--------------------|--------------------|
| 7:45 | 기도 베이직 (교회카페) | 찬양 베이직 (비전홀) | 전도 베이직 (조이홀) |
| | 이요한목사 | 이성민목사 | 안현수목사 |
| 8:15 | 1, 2교구 | 3, 4교구 | 5, 청년부 |
| *교구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 | |

제12기 부부학교

부부관계의 의미를 정립하고 동성함을
누리갈 내면 성장을 위한 교정입니다.

기간: 5월18일(토)~7월6일(토) 8주

시간: 매주 토요일 3:30 - 6:00pm

회비: 부부당 \$100 (교재 포함)

문의: 김규영집사 022 0299 838

카톡 아이디: DavidQkim

교육부서

- 기쁨의 나라 학부모 일일교사: 5월 19일
- 꿈의 나라 학부모 일일교사: 5월 12일
- 청년부 초원모임: 5월 12일, 3시

전도부

- 이번 주일 오후 3시에 브라운스베이 비치
입구에서 거리전도를 합니다.
2024년도 상반기 거리전도는 5월로
마치고, 6월-8월은 찬양연습과 기도회를
갖습니다.
불신영혼의 구원을위해 기도해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 | 일 | 목적/사역팀 거리전도 스케줄 |
|---|----|-----------------------------|
| 5 | 12 | 캄보디아늘푸른 / 캄보디아바라크 |
| | 19 | 예루살렘 / 화요남자제자반 / 주일여자제자반 |
| | 26 | 오타라 |

교우동정

- 소천
고 최종민 집사(오수미)가 지난 5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가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우를 위한 진료와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D G/D A/D D D/F# G Em7

새 롭 게 하 소 서 주 님 상 한 나 - 의 마 - 음
 주 님 마 - 음 주 - 소

1. A7sus4 G/B A/C# 2. A7sus4 A7 D A/C# Bm Bm/A

- 을 - 새 - 서 - 내 안 에 있 는 모 든 것 들 은

G G/F# Em7 Asus4 A D A/C# 3

간 절 하 - 주 님 만 원 합 니 다 - 주 님 만 바 라 는 - 간 절 한

Bm Bm/A G A7 D

나 의 마 음 - 주 님 으 로 - 채 우 소 - 서 -

목장소식

주님과 함께 하는 한우리 푸른목장

| 초원 | 목장 이름 | 목 자 | 연락처 | 초원 | 목장 이름 | 목 자 | 연락처 |
|--------|-----------------|-----|------------|-------------------|------------|------------|------------|
| 코람 데 오 | 1 로템나무 평양 | 김승기 | 21575899 | 온 유 | 39 베다니 | 이강용 | 21977942 |
| | 2 예멘 | 형재홍 | 2102945114 | | 40 인도네시아 | 채제섭 | 21424199 |
| | 3 천국 나그네 | 강성배 | 211069821 | | 41 미얀마 | 신동명 | 21719167 |
| | 4 제주한라 | 이상용 | 21821190 | | 42 도우라안디옥 | 황용선 | 21399603 |
| | 5 멜번 | 지영철 | 2102750720 | | 43 Kia Ora | 이경현 | 2102750654 |
| 소 망 | 6 하얼빈푸른 | 김영현 | 211721138 | 44 한국 다음세대 | 정민혁 | 21630912 | |
| | 7 낮은 올타리 | 주성은 | 2108354513 | 45 중국무지개 | 이성열 | 274573211 | |
| | 8 우크라이나 | 김형수 | 275622266 | 46 터키오네시보로 | 김태성 | 212168531 | |
| | 9 느헤미야 | 이정석 | 21868075 | 47 감비아 | 김규영 | 220299838 | |
| 사 랑 | 10 선한사마리아인 | 권호남 | 212627967 | 48 베뢰아 | 이재용 | 210480543 | |
| | 11 아베스 | 김인배 | 21759380 | 49 필라델피아푸른 | 임상규 | 2108661226 | |
| | 12 바울 로마 | 오 훈 | 2102859399 | 50 인도원달라 | 안병우 | 2108491788 | |
| | 13 스칸디나비아동행 | 김용태 | 274711446 | 51 히엘 필리핀 | 한진호 | 272710948 | |
| | 14 바나바 | 김종국 | 21654688 | 52 베트남 | 김형석 | 21453862 | |
| 다 윷 | 15 바누아투 푸른 | 남성주 | 2102701990 | 53 이리안자야쁘대나 | 채금희 | 21569056 | |
| | 16 블라디보스톡 | 민봉식 | 211063498 | 54 양의문 | 조종면 | 275325423 | |
| | 17 헤세드 누쿠알로파 | 김용희 | 211282102 | 55 말라위 | 여운영 | 225439531 | |
| | 18 수단로고스 | 김성국 | 272714894 | 56 오클랜드 | 장태용 | 224695511 | |
| | 19 솔로몬제도 | 송현호 | 2102954933 | 57 북한개성 | 주윤태 | 2102847491 | |
| 빛 | 20 칠레파타고니아 | 김호준 | 221996630 | 58 키르키즈스탄 | 김태중 | 2102529797 | |
| | 21 브엘세바이스라엘 | 김태원 | 21677132 | 59 일본 | 손동욱 | 212043531 | |
| | 22 오사카 | 김택원 | 220806738 | 60 러셀 | 안응진 | 211821185 | |
| | 23 가나 | 이광일 | 212179303 | 61 노스쇼어 | 오현중 | 273206245 | |
| | 24 부르키나파소 | 권경호 | 21556934 | 62 LA | 경두런 | 211365151 | |
| | 25 가데스바네아 | 허진희 | 2102308976 | 63 서울 | 김태성 | 211499624 | |
| 우 리 | 26 파푸아뉴기니 | 원재호 | 21473018 | 64 오타라 | 이준영 | 21410884 | |
| | 27 월드파키스탄 | 손보영 | 21380366 | 65 산토 | 조기동 | 2102370987 | |
| | 28 엘림 | 이명준 | 272970117 | 66 네팔 은혜 | 구재운 | 277844645 | |
| | 29 고태말라 사랑 | 김휘홍 | 21730740 | 67 직가 바울 | 이군식 | 21779958 | |
| | 30 태국사랑 | 김지연 | 210316041 | 68 이집트 | 박진석 | 21356818 | |
| | 31 월드 모로코 | 윤수정 | 272008546 | 69 임마누엘 싱가포르 | 최재인 | 21524896 | |
| | 32 Central 오클랜드 | 임상혁 | 21878868 | 70 아비가일 | 안경옥 | 2102913234 | |
| 참 빛 | 33 필리핀 안티폴로 | 최종민 | 272287226 | 71 오병이어 | 최병한 | 212136995 | |
| | 34 벨엘 | 신규식 | 21417756 | 72 웰링턴 | 이종훈 | 21781999 | |
| | 35 모스코 | 노희영 | 274308322 | 73 에벤에셀 MercyShip | 이민수 | 21810072 | |
| | 36 섬나 | 나중엽 | 21386202 | 74 캄보디아늘푸른 | 고현숙 | 21996653 | |
| | 37 익투스북한 | 박경배 | 211705296 | 75 캄보디아바라크 | 최진순 | 211862748 | |
| | 38 통가 | 송경순 | 2102562581 | 76 예루살렘 | 박경남 | 274325524 | |
| 교 구 | 초 원 | 교역자 | 3 교구 | 우리 참빛 온유 | 이요한 | | |
| 1 교구 | 코람데오 소망 사랑 | 안현수 | 4 교구 | 무지개 임마누엘 약속 | 이성민 | | |
| 2 교구 | 다윗 빛 | 최영두 | 5 교구 | 믿음 성결 | 김진영 | | |



새로운 삶의 출발 시리즈 3
삶의 방향을 바꾸라 (눅 19:1-10)

흔히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변할 수 없습니다. 언제 변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예수를 영접할 때입니다. 삭개오의 극적인 변화를 보아 선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변화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1. 변화되기 전 삭개오의 삶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세요.
2. 예수 믿은 후 당신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 함께 나누어 보세요.
3. 삭개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때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메시지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보세요.
4. 이번 메시지를 듣고 내게 주시는 은혜 한가지씩 나누고 함께 기도하세요.

덴마크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낙태법 임신 12주→18주 확대...
 15세도 부모 동의 없이 낙태 가능

덴마크가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2주에서 18주로 확대하고, 15-17세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도 낙태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덴마크 보건부는 기존 임신 12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했던 건 낙태법이 처음 제정된 1973년엔 12주 이후 낙태를 하는 경우 합병증 위험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51년이나 지난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반이민 정당의 메테 티센 의원은 “끔찍한 날”이라며 “끔찍한 새 법이다”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AP통신은 낙태는 미국에서 매우 논쟁적인 이슈이지만, 유럽에서는 광범위하게 합법적 행위라고 전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뉴질랜드

“네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가 반역을 고치리라”
 뉴질랜드인 대다수,
 '젠더 이데올로기' 가르치는 것 반대 '최근 여론 조사'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뉴질랜드인 대다수는 초등학교에서 젠더 이데올로기(사람의 성별은 스스로 바꿀 수 있고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통해 바꿀 수 있다)를 가르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패밀리퍼스트(Family First NZ)의 의뢰를 받아 큐리아 마켓리서치(Curia Market Research)가 뉴질랜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초등학교에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반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에게 스스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고 원할 경우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통해 성별을 바꿀 수 있다고 가르쳐야 한다는 응답자는 15%에 그쳤다. 반면, 69%(3명 중 2명)은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출처: 원처치).

기 도 문

사랑하는 하나님,

- [덴마크] 미성년자에게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킨 덴마크를 꾸짖어 주시고, 돌이켜 거룩한 다음세대를 세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 [뉴질랜드] 어려서부터 성적 혼란을 야기하는 교육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뉴질랜드가 돌이켜 바른 가치관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 [교우를 위해]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된 직분자들이 선출되어 우리 모두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